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금리 (연이자율) 3.509 (+0.012)	환율 (원/달러) 1369.20 (-9.10)

# metro® 경제

한강 위 떠있는 호텔 짓는다  
서울시 5500억 투입  
02



## 가성비 으뜸 ‘다이소’ 수익 위해 환경 뒷전

‘국민가게’ 다이소로 잘 알려진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연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수익성까지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아성다이소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비결로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가성비를 앞세운 나머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제품 위주로 제품을 판매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2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해 3조4604억원의 매출에 26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5%와 9.4%가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1년 2838억원에서 2022년 2393억원이다.

**아성다이소 매출 고공행진  
지난해 영업이익률 7.6%  
ESG는 상대적으로 소홀  
플라스틱·일회용품 등  
유해물질 기준량 초과 검출**

수익성은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다이소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7.6%로 이마트(약 1.1%), 롯데마트(약 3.5%), 쿠팡(약 1.9%)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아성다이소의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ESG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경우 전 세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ESG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아성다이소는 매출 3조원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상품을 판매했다가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판매한 아기 욕소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약 600배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량 회수했고, 지난해말에는 종이 빨대, 욕실 슬리퍼,



다이소 매장 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이다. /최빛나 기자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일회용 접시 10개입, 16개입 등 2종에서도 총용출량이 초과 검출됐다. 총용출량이란 제품의 유해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등이 액체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나온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훌쩍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PP컵’ 280ml로,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1리터당 30mg을 2.5배 웃도는 74mg이 검출됐다.

더군다나, 품질 논란이 있었던 상품 대부분이 아성다이소의 모회사인 아성HMP의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어린이 장난감, 욕실슬리퍼 등은 ㈜아성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아성과 아성HMP는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의 차녀인 박영주 아성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다이소는 3만 가지가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월 수백 개가 넘는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더 싸고 좋은 상품’을 위해 700개가 넘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불량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업계 내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2022년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은 자서전에서 “1개의 불량제품은 고객에게 100%불량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고금리 장기화... 은행 대출 연체율 또 상승

2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0.06%p ↑ 기업 0.09%p, 가계 0.04%p 올라 은행권, 건전성 위해 대출문턱 높여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국내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 물론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고신용자도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2월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0.51%를 나타냈다.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

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2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과 동일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0.04%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 규모 상승 폭이 가계대출보다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9%p 오른 0.59%였다. 대기업대출(0.18%)과 중소기업대출(0.70%)이 각각 0.06%p, 0.10%p씩 올랐다. 중소기업인 연체율은 0.76%를 기록했다. 이는 0.14%p 오른 것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p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0.38%) 대비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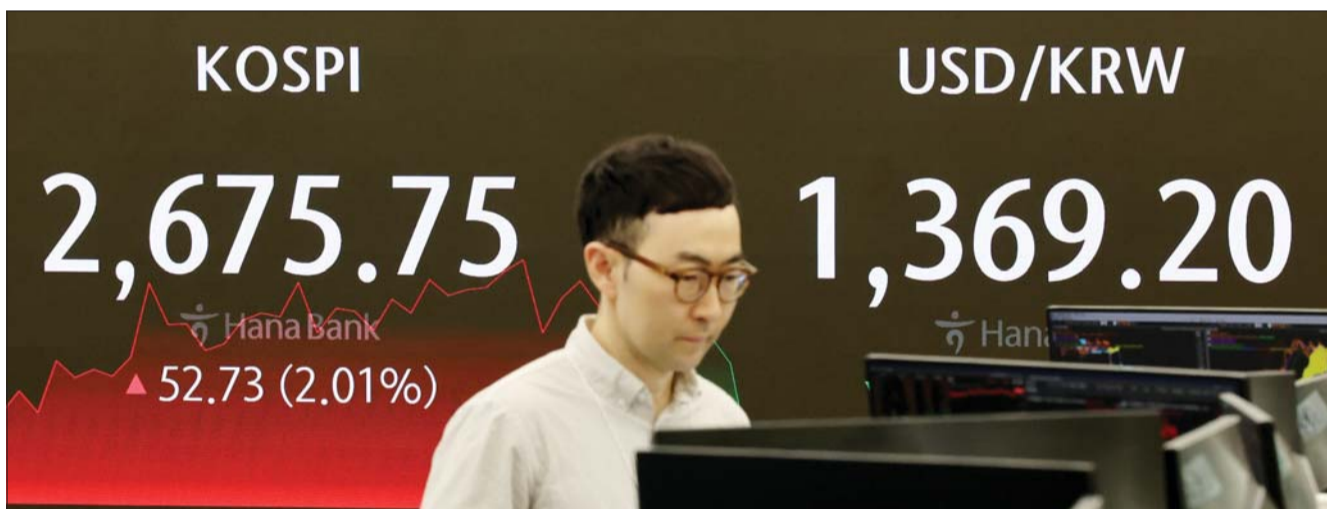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4%로 0.10%p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이전 대비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214.0%, 16.56%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고금리 장기화 예고에 고신용자도 신용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피, 반도체·이차전지주 반등에 2670선 회복

코스피가 반도체·이차전지 상승에 힘입어 2670선을 회복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45.44)보다 16.79포인트(1.99%) 상승한 862.2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 글로벌 오가노이드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

오늘 ODC24 ‘차세대 노멀’ 컨퍼런스 빈 산하 빈맥 국제병원과 동시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인다. 장 오가노이드와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세계 처음 인체에 투여한 글로벌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채택된 가운데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ODC조직위원회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차바이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ODC24 ‘차세대 노멀:

오가노이드와 함께하는 삶(The Next Normal : Living With Organoids)’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ODC24는 예년과는 다르게 ODC조직위원회가 운영한다.

ODC조직위원회는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한국줄기세포학회, 베트남 빈맥(Vinmec)국제병원, 글로벌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람다 바이옴로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컨퍼런스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오가노이드 기술의 잠재력, 오가노이드의 실제 활용 사례, 동물실험

대체(Animal-free) 솔루션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ODC24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Vin) 그룹 산하 빈맥 국제병원과 동시에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우선 침샘 오가노이드를 개발한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대학 의료센터의 로버트 콕스(Robert Coppe) 교수가 참석한다. 콕스 교수 연구팀은 침샘 재생치료제를 개발, 침샘 기능 저하 환자 대상 인체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정식 “尹 거부권 남발에 국회 무력화... 엄중한 경고 필요” /사진 뉴시스

▲ 민주, 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절... 조국당 “깊이 고민해달라”

▲ “총선에서 지지후보 떨어져 우울”... ‘PESD’ 주의보

▲ 정진석 “‘관계자발’ 산발적 메시지 지양하라... 비서가 할일은 대통령 보좌”



▲ 이재명 “국민 두명 중 한명 채 상병 특검 찬성... 진상규명 시작해야”

▲尹 대통령, 신임 합참차장 삼정검 수취 /사진 뉴시스